

CAF

Center for Ambitious Failure

KAISTian Story - 공모전 수상작

It's Not A Failure,
It's Only Driving With A Brake On

실패가 아니라, 단지 브레이크를 걸은 채 달리는 것

Fachrina Dewi Puspitasari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편안한 범위를 벗어날 필요는 없었다.
내 안전한 삶에 어떤 선택들이 적합할지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의 한계를 알기 위해 자기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
내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나는 염치없게도 내 행운을 당연시했고 성공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나와 다른 인생 경험들과 성취들을 가진 다른 동료들에 비해 내가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말하거든 이는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다.
너무 오랫동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열정을 묶어 두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삶의 어떤 부분도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달리고 있었을 뿐이다.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며 브레이크를 걸고 달리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다.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한 일방적인 여정이며 도중에 잠시 멈추는 순간들이 있을 뿐이다. 지능적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달라진다. 나이가 들면서 보다 효율적인 차로 갈아탄다. 내가 5살이었을 때는 이 길을 걸어갔지만 20대 후반인 지금은 차를 몰고 가고 있다. 탱크 안의 연료, 트렁크 안의 용품, 지갑 안의 동전, 모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하면서 얻은 경험들이다. 그러나 내 속도계의 한도에 닿을 만큼 빨리 달리지는 않는다. 길이 조금 울퉁불퉁한 것도 있지만 나 또한 브레이크를 걸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걸고 달리기라는 비유는 4년 전 상사에게서 들은 값진 조언에서 나온 말이다. 발단은 1대1 면담 시간이었다. 그분께 나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그분은 처음에는 나의 성장과 팀에 대한 공헌을 듣기 좋게 칭찬해주셨다. 그런 말들은 듣기 좋긴 하지만 나에게서는 너무 얄게 다가왔다. 나는 나를 아끼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그때 그분은 브레이크에 대한 비유를 해주었다. 그분은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느꼈다고 하셨다. 잠재력을 묶어두고 무의식적으로 커리어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보였다고 하셨다. 네 한계를 시험해보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보라. 그날 이후 내 마음 속에 계속 남아있는 말이 되었다.

살면서 처음 들은 비판도 아니었지만 이 말은 내 가슴 속에 깊은 구멍을 만들어 파고들었다. 그 말을 듣고 내 기억들 모두 떠올리고 내 삶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내가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다. 내가 성취한 것은 모두 내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나는 운이 좋았던 것일 뿐이었다. 나는 살면서 많은 천사들을 만났다. 가정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대학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나를 지원해주신 삼촌들이 있었던 덕분이었다. 해외로 나가 영어를 연수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보다는 좋은 네트워크를 만났던 덕분이었다. 우등졸업을 하고 다국적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지 않고 공부했던 밤들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나의 성취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롤 모델, 노력가, 도전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편안한 범위를 벗어날 필요는 없었다. 내 안전한 삶에 어떤 선택들이 적합할지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의 한계를 알기 위해 자기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 내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나는 염치없게도 내 행운을 당연시했고 성공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나와 다른 인생 경험들과 성취들을 가진 다른 동료들에 비해 내가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행운과 노력 사이의 간극에 대해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노력했음에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시에는 실패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운이 좋을 뿐일 때는 실패는 브레이크를 걸고 달리는 것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말하거든 이는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다. 너무 오랫동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열정을 묶어 두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께 달려가는 운전자로서 당신에게 몇 가지 격려를 해주고 싶다.

1. 자신의 성질은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만 집중하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자신의 성질은 자신에게 절대적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공격적이거나 유기적이거나 원하는 성장의 방식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숙명이 있는 법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취는 모두 다르다. 처음 걷기 시작했던 시기가 각자 다 달랐듯이.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성취한 것은 선택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성질은 상대적이기도 하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에 비유한다면 주변에 있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 빨리 가라고 재촉하기 전까지는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성질이라는 것은 무형의 어떤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척도가 더 적합하다. 이러한 상대성이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을 바로잡기 위한 정기적인 감사의 역할을 한다.

2. 성공은 노력보다 운에 더 많이 달려있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는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을 즐길 수 있도록 몸 속의 많은 복잡한 계통들이 작동하고 있다. 살아있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행운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늦게 나와서 버스를 타려면 달려야 한다. 달리는 것은 우리가 쏟는 노력이다. 시간 맞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는지는 운에 달렸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열심히 하든 그렇지 않은 일을 하며 결과는 운에 맡긴다. 운에 맡기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모든 고난에는 해소가 뒤따른다.

생각해보면 참 공평한 세상이다. 모든 것들은 짝이 있다. 음과 양, 남과 여, 삶과 죽음, 등등.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걸은 브레이크는 언젠가는 해제될 것이다. 오늘 내가 해제한 브레이크는 언젠가 다시 걸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균형이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또는 그 역으로도. 이로서 인생을 바퀴처럼 된다. 죽는 날까지 바퀴가 돌아가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를 오간다. 오늘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문제가 없다면 조만간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다. 내게 실패란 닫힌 결론처럼 들린다. 인생은 모서리 너머 아무것도 없는 평면이 아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산다는 것은 현재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올 것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앞서 나는 실패란 노력 끝에 오는 나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격려에 비추어보면 실패란 사실 허상일 뿐이다. 2번째 격려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서 운이 작용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 따라서 인생의 실패들은 단지 브레이크를 걸으며 달리는 순간이었을 뿐이다.

운전의 비유에서 자동차가 멈출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할 수는 없다. 운전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고 휴식을 취하기도 해야 한다. 멈추는 것은 그저 멈추는 것일 뿐이다. 주행을 멈추는 때는 우리가 인생에서 휴식을 취할 때와 같다. 가는 길에 몇 번 쉬어 가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자주 긴 시간동안 멈추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한다면 목표에서 벗어나 안주하게 되고 다시 시작하기 귀찮아질 수 있다. 차를 자주 멈추면 주행 시간도 길어지고 연료 소비도 비효율적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매 순간을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멈추면서 허비한 1초는 다시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1초일 수도 있다. 우리가 낭비한 몇 초는 죽어가는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몇 초일 수도 있다.